



함께하는 삶

노희석/시인, 사회봉사자기념사업회 발기인 www.kssma.org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 본다.

분명 운명은 어느 순간에 결정되어지고 만다. 나에게 누가 이 질문을 던지면, 나는 “한 사람의 운명은 그가 잠들면서 무엇을 생각했으며, 그리고 그 다음날 깨어났을 때 무엇을 생각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말할 것이다.

즉, 그가 하루하루 어떤 생각의 씨를 가슴에 품고 살았느냐에 의해 운명은 좌우된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잠에 들었다가 다음 날 깨어나, 무엇에 흘린 듯 일상 속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운명은, 과연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결정되어질 수 있을까?

삶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가는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덩어리를 어떻게 조각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빚어 갈 것인가의 생각이 바로 자신의 운명이 된다. 남들과 어울려 서로 도와가며 훌륭히 빚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만의 아집과 독선으로 힘들게 빚어 가는 사람도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운명을 남들과 더불어 함께 개척해 나가는 슬기로운 사람과 혼자 개척해 나가겠다는 무모한 사람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신의 삶을 누가 사랑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받아들이고 수용해 주어야, 사랑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과연, 오늘날 자기가 지은 집에서 자기가 농사 지은 쌀로 밥해 먹고, 자기가 지은 옷을 입고 출근하는 사람이 있을까?

지금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고 산다. 그것은 우리의 삶은 남들의 도움 없이는 존재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내가 남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듯이, 나도 분명히 남들에게 도움이 되고, 도움을 주는 일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원칙이다. 그런데 요즘은 이러한 원칙을 벗어 던지고, 적당히 편하게 살아가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진 것 같다.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이나 기웃거리고, 가능하다면 땀을 흘리지 않고 남들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탐하면서 어부지리로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잘못된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단연코, 이러한 사람들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 가서야 그가 이 세상에서 이룬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할 것이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고기도 마음대로 구워먹지 않았다고 한다. 냄새를 피우는 것이 이웃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맛난 음식 같은 것은 반드시 나누어 먹었다고 한다. 우리는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한다.

복동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도와주었으면 그만이지, 나중에 그를 은혜도 모르는 의리 없는 사람이라고 몰아붙일 필요는 없다. 살다보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마련이다. 지금 내가 남들로부터 받는 도움이나 은혜는 내가 예전에 복동이를 도와준 댓가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니면, 내 자손들이 그 덕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된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베풀며 살아가는 어찌면 좀 어리석은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자.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켜온 의인, 사회봉사자 같은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한없이 그리워진다. PPFK